**마2819 Note**

**◆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**

우리는 교회를 향상시키고 복음의 확장과 효율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

법, 새로운 계획, 새로운 조직을 고안해 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.

오늘날의 이러한 현상은 개인을 보지 못하거나 개인을 계획 또는 조직 속으로 빠뜨

리는 경향이 있다.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시하는 것

이다.

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.

교회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는 반면,

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.

" 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  이름은 요한이라."

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고하고 준비한 섭리는 이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

" 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"( 사9 : 6)

세상의 구원은 이 요람에 누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다.

바울은 복음을 세상에 심은 사람들의 특징을 분류하여 그들이 성공한 신비를 풀어

주고 있다.

복음의 영광과 효력은 복음을 선포한 개인에게 달려있다.

하나님께서  "여호와의 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  전심으로 자기에게  향하는

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" (대하 16 : 9)라고 선포하실 때, 그는 남자와 여자

의 필요성을 선포하시며, 그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로 그들을 의존하심을

선포하시는 것이다.

이 중대하고 절박한 진리는 기계 문명의 현 세대가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이다.

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 천체에서 떨어뜨리는 것만큼 치명적인

것이다. 그 결과 어두움,  혼돈과 죽음이 따르게 된다.

오늘날 교회가 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기계 문명이나 어떤

새로운 조직이나 고상한 방법이 아니라,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, 즉 기도의 사

람, 기도에 능력있는 사람들이다.

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.

성령은 기계 문명 위에 임하지 않고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.

성령은  계획에 기름부으시지 않고,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신다.

이. 엠 . 바운즈의 ' 설교자와 기도'중에서/

◇마헤쉬 차브다

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마치셨습니다.

이제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.

**◆교회를 통해서만이 일하시는 왕**

Ω마2818. 이에 예수께서 나아와, 그들에게 이르시니라, 이르시되, 모든 권능(위임

받은 권능, 엑수시아: 능력, 특권, 힘, 재능, 지배, 영향력)이 하늘에서와 땅에서

내게 주어졌느니라

마2819.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,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(오노마:이름,권위)와 아들의

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(잠겨 하나로 됨)를 주면서①,

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,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(다다스

코:가르치다,배우다), ②,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[마데튜오:(자동사)학생이 되

다,(타동사)제자를 만들다,학자로 등록하다,교훈하다,가르치다,제자가 되다],

마2820. 그리고 보라, 내가 항상 곧, 이 세상의 끝까지 조차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,

아멘.

Ω막1615.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,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,

낱낱의 족속(피조물)에게 복음을 전파(선포)하라

막1616. 믿고, 침례(잠겨 하나로 됨/밥티조:물에 잠그다, 완전히 젖게하다, 적시다,

착색하다)를 받는 그는 구원되느니라, 그러나 믿지 않는 그는 지옥에 떨어지느니라

(카타크리마:불리한 판단을 하다,선고하다,정죄하다,저주하다).

막1617. 그리고 이들 표적들이 믿는 그들을 따르느니라, 내 이름의 권위로 그들이

악령들을 쫓아내며, 그들이 새로운 발성들로 말하느니라,

믿는 자들에게 따른 처음 표적중의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.

그 말은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이다

나는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 넘겨 주었고,

나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 할 수 있는데, 이는 내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

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없이는 이 땅위에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.

당신이 그 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,

그 분도 우리 없이는 지내 실 수 없습니다.

왜냐하면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.

몸없이 살 수 있다고 할 머리는 없으며,

머리없이 몸만으로 살 수 잇다고 할 몸 없습니다.

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수행됩니다.

그의 일은 우리와 떨어져서 결코 행해지지 않을 것이며, 우리 또한 그 분 없이는 살

수 없습니다.